

韩国民众书林

中韩 大辞典

중한대사전

监 修

北京大学 教授 苏培成

北京师范大学 教授 启功

国民大学 教授 宋昌基

文学博士 李瑢默 编著

民众书林编辑局 修订

辽宁民族出版社

H556/6

2007

韩国 民衆書林

中韓大辭典

중한대사전

监 修

北京大学 教授 苏培成

北京师范大学 教授 启功

国民大学 教授 宋昌基

文学博士 李瑢默 编著

民众书林编辑局 修订

辽宁民族出版社

辽宁省版权局著作权合同登记号: 06-2007 年第 144 号

엠텐스중한사전 © 2005 by Lee Yong-mook

Translation rights arranged by Minjung Publishing Co
through Shinwon Agency Co. in Korea

Simplified Chinese edition

© 200X by Liaoning Nationality Publishing House

© (韩) 李瑛默 2007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中韩大辞典 / (韩) 李瑛默编著. —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07.12

ISBN 978-7-80722-486-0

I. 中… II. 李… III. ①朝鲜语—词典②词典—汉语、朝鲜语 IV. H556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168291 号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 25 号

邮编: 110003)

印刷者: 辽宁出版集团新华印刷厂

幅面尺寸: 187mm × 130mm

印 张: 95

字 数: 8800 千字

印 数: 1-3000

出版时间: 2007 年 12 月第 1 版

印刷时间: 2007 年 12 月第 1 次印刷

责任编辑: 文淑东 金惠连

封面设计: 杜 江

责任校对: 边京爱

定 价: 158.00 元

邮购热线: 024-23284335

E-mail: lnmz@mail.lnpgc.com.cn

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承印厂调换。

제 3 판을 내면서

본 중국어 사전 초판이 1966년 「新中國語辭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이래, 1990년 「엣센스 中國語辭典」 제2판이 출간되었고, 다시 11년이 지나 제3판의 출간을 보게 되니, 본 사전의 경륜을 논하기에 앞서 보정(補訂) 작업이 너무 늦어진 점 독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돌이켜 보면, 36년 전 이 사전이 첫 출간될 때만 해도 우리 나라 웬만한 종합 대학이나 외국어 대학에 중국어문학과가 개설되어 중국어 또는 중국 문학에 대한 강좌가 한창이었지만, 중국어 사전 하나 없이 중국어를 배워야 했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더구나 한·중(韓·中)의 역사적 관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까운 나라였다. 한자(漢字)를 중심으로 한 같은 유교 문화권을 형성하며 학문과 사상은 물론 인성 도덕과 관습 등 많은 것을 공유했던 양국 관계를 생각할 때 중국어 학습에 필수 불가결한 사전의 편찬은 한 개인이나 출판사의 관심 정도를 넘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였던 바, 그 사명을 선각(先覺)하고 한국 최초로 펴낸 것이 바로 이용묵 교수의 「新中國語辭典」이었다. 그렇듯 큰 사명을 띠고 나온 본서였지만, 편저자의 작고로 인해 후속 개편이 난관에 부딪혔던 것이다. 부득이 지난 1997년 편저자의 영애 이미경(李美京)님이 동해대학(東海大學) 중문 연구소를 거쳐 남경대학(南京大學) 박사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 일시 귀국한 기회에 그와 전면 개편을 합의한 후 4년에 걸친 작업 끝에 제3판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금번 제3판 개편의 중점은 크게 체제(體制)와 내용(內容) 두 가지 면에 두었는데, 첫째는 중국 대륙의 새 어문 방향에 맞춰 종전의 번체자 중심의 표제자·표제어를 간체자(簡體字)로 바꾸고, 부수별·획수순으로 되어 있던 표제어를 병음(拼音)순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두번째는 내용상의 보정(補訂)이었는데, 2년여의 시간을 투입하여 체제를 다 바꿔 놓고 보니 어휘나 내용상 부족함이 너무 많아 국내외 자료를 총동원하여 재집필에 들어갔고, 조판 과정에서도 신조어, 고어, 전문어를 대폭 보완하고 현대 한자의 자형(字形), 독음(讀音) 등 벽자(僻字)를 만들어 넣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끝에 겨우 유서(類書)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중국어 사전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제3판은 외국어 사전으로서 자칫 범하기 쉬운 현대 상용 어휘의 선별, 특수 명사의 해설 등에 있어 필요한 고증(考證) 및 오류를 없애고자 당대 중국어 어휘·문자학(文字學)·발음·문헌학(文獻學) 등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북경 사범대학의 치공(啓功) 교수와 북경대학의 쑤웨이칭(蘇培成) 교수, 그리고 국내 중문학계의 원로 교수로서 중국어 연구와 교육에 일관해 오신 국민대학 송창기(宋昌基) 교수의 감수(監修)를 거쳤다.

위 세 분 감수 교수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 제3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 특히 주력하였다.

1. 새로운 발음 표기 체계의 도입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 교육계의 방향에 부응하여 한어 병음 자모(漢語拼音字母) 발음 표기 체제로 일신하였다.
2. 용례(用例)의 풍부화·다양화 초판·제2판 때의 지면(紙面)의 제약에서 과감히 벗어나, 표제자의 자해(字解)와 숙어의 주석에 되도록 많은 용례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담음으로써 이해와 활용도를 증진시켰다.
3. 새로운 어휘의 보충과 새로운 어의(語義)의 반영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언어 생활의 변화에 비추어, 최신 자료에 의해서 가능한 한 많은 새 어휘를 보충하고, 어의의 변화도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본 편집진의 열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로 인하여, 이 사전을 처음 펴내신 편저자의 순수한 학문적 의도와 노력에 흠이 되지 않으까 적잖은 두려움이 앞선다. 그러나 앞으로 판을 거듭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이 사전에 대하여 지금껏 보내 주신 찬사와 지지에 보답하기로 다짐하는 바이다.

2001년 1월 15일

민중서림 편집국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제 2 판)

이용묵(李瑑默) 교수 편저 「신 중국어 사전(新中國語辭典)」이 세상에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66년의 늦은 가을이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이 우리 나라와 가까이 이웃한 나라요, 중국 교민(僑民)이 여전히 우리 나라에 많이 살고 있었고, 각 대학마다 중어 중문과(中語中文科)가 있어 많은 학생이 중국어 담당 교수 밑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복 이후 20년이 넘도록 우리 나라에는 중국어 사전이 하나도 없는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신 중국어 사전」은 오로지 이 교수님의 끝없는 중국 및 중국어에 대한 애정과 어학 사전 편찬의 집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선구자적 업적이었다.

맨 처음에 퇴색한 시험지에 작성된 초고(草稿) 문치를 보자기에 싸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오신 후, 원고 교정에서 교료(校了)에 이르기까지 무려 2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원고와 교정쇄(校正刷)를 들고 편집국 사무실을 들락거린 신 노 교수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피도 작고 미흡한 점도 많은 조그마한 책이 되어 나왔지만, 저자 선생님의 열의가 담긴 이 사전은 다행히 애용자 여러분의 호평을 받아, 해마다 중쇄(重刷)를 거듭하여 왔다. 그 동안 애용자 여러분으로부터는 뜨거운 찬사의 표시와 간곡한 교시(敎示)가 답지하고, 애용자 나뉠대로의 주문 사항도 수없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1973년에 저자 선생님께서 급서(急逝)하심에 따라, 사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은 엄두도 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런데, 궁하면 통한다던가, 고(故) 이 교수님의 영애(令愛) 이미경(李美京) 님이 선고장(先考丈)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 대만의 동해대학(東海大學) 중문 연구소(中文研究所)에서 오랫동안의 연찬을 마치고 1985년 여름에 귀국하셨다. 편집국에서는 즉시 이미경 님의 주재(主宰) 아래, 「신 중국어 사전」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근 4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 국내외 정세의 변천과 중국어 및 중국어학의 눈부신 변모에 발맞추어 면목을 새로이 한 「엡센스 중국어 사전」(전면 개정판)이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되었다.

이 「엡센스 중국어 사전」은 어디까지나 「신 중국어 사전」 초판의 개정판이다. 골간(骨幹)과 결구(結構)는 초판의 그것을 고스란히 계승 온존(溫存)하면서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정성을 기울여 보완하노라 애썼다.

그러나 우리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력(微力)을 돌보지 않은 시도가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는지, 또 초판의 성가(聲價)에 누(累)나 끼치지 않았는지 적히 송구스럽다. 이나마 꼴을 이루게 된 것은, 일신상의 계획을 완전히 중단하고 전적으로 이 사전의 개편 작업에 분골 쇠신, 열성적으로 작업을 솔도해 주신 이미경 님의 덕분이라,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원

저자의 제자이시자, 저자의 영애의 은사이신 송창기(宋昌基) 교수님께서 시종 일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음에 고마움을 금할 수 없다. 또 2년여에 걸쳐 헌신적으로 이 사전의 원고 검토와 교정 작업에 힘을 기울여 주신 젊은 중국어학도 고인숙(高仁淑)·권광희(權光禧)·김성순(金成洵)·김수정(金秀庭)·김애덕(金愛德)·김종선(金鍾善)·김현우(金鉉雨)·남규식(南奎植)·박봉순(朴捧順)·박영순(朴英順)·소현경(蘇賢景)·신은주(辛銀珠)·이기승(李基承)·이범순(李範順)·이은애(李恩愛)·임명순(林明順)·장미선(張美善)·조혜련(趙惠連)·주인선(朱寅善)·태혜영(太惠榮)·홍승숙(洪承淑)·홍요한(洪堯翰)님 등의 공로를 특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수많은 벽자(僻字)를 신주(新鑄)하면서 까다로운 조판(組版) 작업을 끝까지 마무리지어 주신 민중인쇄공사(民衆印刷公社) 안길웅(安吉雄) 사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1989년 5월 일

민중서림 편집국

머 리 말(초판)

앞으로의 한중(韓中) 상호간의 의사 소통이 백화(白話)의 습득을 통해서만 가능하리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종래, 한중(韓中) 양국어에 있어서의 한자(漢字)의 공통에서 오는 안이(安易)한 생각이 중국어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식을 뿌리 깊게 하였음은 부인치 못할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압도적 영향을 주어 왔던 유교(儒敎)와 결부된 문언(文言; 漢文)이 커다란 권위로써 군림(君臨)했던 구시대(舊時代)는 바로 오사 운동(五四運動)을 고비로 백화(白話)에 그 자리를 넘겨 주지 않을 수 없게 되매, 중국어와 중국어학에는 마침내 생생한 새 국면(局面)이 전개된 것입니다. 더욱이 제 2차 세계 대전 후 전과를 통해서 퍼지는 말이나 출판물에 쓰이는 중국어 어휘의 신진대사(新陳代謝)의 신속성, 발음·뜻·용법의 변화의 격심상(激甚相)은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과거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말들이 하나하나 안전(眼前)에 형태를 보이게 되는 형편(문자의 뜻을 떠나 발음만으로 어휘를 표기하는 따위)이니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왕에 외국에서 만들어진 어학 사전들이 과연 온전한 구실을 하게 될지도 의문시되는 터입니다. 또 문자에 대한 반 세기 동안의 몸부림, 표음 문자화(表音文字化)로의 모색의 꾸준한 노력——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편자는 늘 우리의 다음 세대(世代)를 위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중국어 습득에 지침이 될 사전을 편찬하는 일이야말로 기성 세대에 과하여진 급선(急先)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왔던 것입니다.

사전 편찬이란 큰 사업을 도저히 감당해 내지 못할 천학 비재(淺學菲才)를 무릅쓰고, 충분한 준비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채 감히 독력으로 이를 시도하고 보니, 이 작업의 곤란과 복잡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았으며, 진행 도중에 수삼차에 걸쳐 정정과 번복의 되풀이를 면치 못하였으나,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른 이 마당에서 회고하여 보건대 역시 당초의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되고 만 느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다만, 개척자로서의 외국 선인(先人)들의 지대(至大)한 수고에 전적으로 힘입은 바 크고, 적잖은 시일을 두고 각 대학의 중국어 담당 선생님 여러분과 사계(斯界)의 선배 제위의 조언(助言)·충언(忠言)의 집적(集積)으로서 요만한 것이라도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하는 바, 여러분의 방명(芳名)을 일일이 올리지 않고, 지면으로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전에서는 특히 표제자 8천여 자의 자해(字解)에 주력을 기울였으므로 비록 전체 지면의 분량 관계로 수록한 숙어의 수가 2만 5천(한중편 1만 5천)여 어에 불과하여 부족한 감을 주기는 하나, 서구어(西歐語) 사전과는 달리 한

중 공통(韓中共通)의 어휘를 대폭적으로 제외하였을 뿐 아니라, 표제자의 결합에 따라 어의(語義)의 이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록된 어휘 이상의 능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자위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사전을 사용하다가 부족된 점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으로부터의 교시(敎示)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으며, 광복 후 사전 출판에 지대한 공을 세우신 민중서관 이병준(李炳俊) 회장, 박윤철(朴允哲) 사장께서 중국어 사전 출판 여건(與件)이 전혀 미숙한 현재에 있어서 감연히 출판을 쾌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중국어학계를 위해서, 한중 친선의 견지에서 높이 평가될 거사로 찬양하며 최대의 경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동시에 이 사전의 기획·편집을 직접 지도해 주신 최기원(崔基元) 편집국장과 유한성(劉漢成) 사전부장의 수고에 만강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광스럽게도 이 사전이 완성되기까지 끊임없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묵보(墨寶)를 부쳐 주신 양서소(梁序昭) 각하께 삼가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1966년 6월 일

편자 씀

部 首 索 引

【一 畫】

丶	3231
一	3231
丨	3232
丿	3232
乙(一乚乚)	3233

【二 畫】

亠	3233
乚	3234
冫	3234
讠(言)	3234
二	3235
十	3236
厂	3236
匚	3236
卜(卜)	3237
リ	3237
冂	3237
八(丷)	3238
人(人)	3238
亻	3238
勹	3241
乚(⇒刀)	
儿	3241
几(几)	3241

厶	3242
又(又)	3242
乚	3242
冫(巳)	3242
冫(阜)左	3242
冫(邑)右	3243
凵	3244
刀(刂)	3244
力	3244

巳(⇒冫)

【三 畫】

彳	3245
亻(小)	3249
冫	3250
冫(月)	3251
广	3251
冂(門)	3252
乚(乚)	3252
工	3253
土	3254
士	3255
艹(艹)	3256
大	3260
升	3260
九	3260
寸	3260
弋	3260
扌	3261

小(ㄣ)	3264
口	3264
冂	3269
巾	3269
山	3270
彳	3271
彳	3271
夕	3271
夕	3272
彳	3272
彳(食)	3272
冂(冂)	3273
尸	3273
己(巳)	3274
弓	3274
中	3274
女	3274
幺	3275
子(子)	3276
彳(彳)	3276
马(馬)	3278
ㄣ	3278

【四 畫】

𠂇	3278
斗	3279
乚(⇒乚)	
文	3279
方	3279

火	3279
心	3280
户(戶戶)	3281
讠(示)	3281
王	3282
韦(韋)	3283
(⇒⇒⇒)	
木	3283
犬	3287
歹	3287
车(車)	3287
戈	3288
比(比)	3289
瓦(瓦)	3289
止	3289
支	3289
日	3289
臼(臼)	3290
贝(貝)	3290
见(見)	3291
父	3291
牛(牛止)	3291
手	3291
毛	3292
气	3292
攴	3292
片	3292
斤	3293
爪(爪)	3293
月(月)	3293

欠	3295	(艮⇒艮)	麦(麥)	3314	音	3320
风(風)	3295	疋(疋)	走	3315	革	3320
爻	3295	皮	赤	3315	頁(⇒页)	
小(⇒↑)		母(⇒母)	豆	3315	骨(骨)	3321
丰(丰丰)	3295		車(⇒车)		食(食⇒个)	3321
升(⇒↑)		【六 畫】	西	3315	鬼(鬼)	3321
毋(毋母)	3295		辰	3316	風(⇒风)	
水(水)	3295	衣	豕	3316	韋(⇒韦)	
		羊(羊羊)	鹵(鹵)	3316		
		米	里	3316	【十 畫】	
【五 畫】		末(末)	貝(⇒贝)			
穴	3296	老	見(⇒见)		鬥	3321
立	3296	耳	足(足)	3316	彭	3321
疒	3296	臣	豸	3317	馬(⇒马)	
衤	3297	西(西西)	谷	3317	骨(⇒骨)	
示(示⇒衤)	3298	頁(頁)	采	3317	鬼(⇒鬼)	
瓦(⇒瓦)		庀	身	3317		
石	3298	虫	角(角)	3318	【十一畫】	
龙(龍)	3300	缶				
业	3300	舌	【八 畫】		麻	3322
目	3300	竹(竹)	青(青)	3318	鹿	3322
田	3301	臼	其	3318	麥(⇒麦)	
皿	3301	自	雨(雨)	3318	鹵(⇒鹵)	
皿	3301	血	齿(齒)	3318	鳥(⇒鸟)	
钅(金)	3302	舟	鼈(龜)	3319	魚(⇒鱼)	
矢	3304	羽	食(⇒个)		【十二畫 以上】	
禾	3304	聿(⇒聿)	金(金⇒钅)	3319	黑	3322
白	3305	艮(艮)	隹	3319	黽(⇒黽)	
瓜	3305	糸(糸⇒纟)	魚(魚)	3319	鼠	3322
鸟(鳥)	3305		門(⇒门)		鼻	3322
用	3306	【七 畫】	【九 畫】		齒(⇒齿)	
氷(⇒水)		辛			龍(⇒龙)	
矛	3306	言(言⇒讠)				
丰(⇒丰)						

● 「中國語辭典」 제 3 판을 감수(監修)하신 분들

啓功(치공)(愛新覺羅 啓功): 北京師大 卒, 現 北京師範大學 中文科 教授, 博士導師, 中國國家文物鑑定委員會 主任委員, 全國政協委員, 中央文史館 館長
 主要著書: 《古代字體論稿》, 《詩文聲律論稿》, 《漢語現象論稿》, 《論書絕句》, 《啓功論叢》, 《啓功韻語》, 《啓功絮語》, 《啓功贅語》外 多數

蘇培成(수배이청): 北京大 卒, 現 北京大學 中文科 教授, 博士導師, 中國語文現代化學會 會長, 《現代語文》·《漢字教育》顧問
 主要著書: 《漢字簡化字與繁體字對照字典》, 《錯別字辨析字典》, 《漢字形義分析字典》(共著), 《文字工作者實用語文手冊》(共著), 《現代漢字學綱要》外 50余篇

宋昌基(송창기): 서울大 卒, 現 國民大學 中文科 教授, 中國國家文學博士, 國民大 語文學研究所 所長, 韓國詩經學會 會長, 東方文化研究院 院長
 主要著書: 《中國語組織論》, 《綜合中國語講座》, 《中國古代女性倫理觀》, 《老子와 儒家思想》(共著), 《明心寶鑑新釋》(共著)外 論文 〈天論〉, 〈文言常用虛詞用例注釋〉 등 多數

● 제 3 판 편찬(編纂)에 참여하신 분들

책임 편집: 임 창 우

편집 위원: 윤 차 현 전 창 진

집필·교열: 이 미 경 김 명 춘 민 용 기 임 승 미

편집·교정: 권 희 성 김 명 춘 김 선 미 김 성 록

민 용 기 오 경 선 이 정 갑 임 승 미

임 승 희 조 미 경 황 현 아

● 제 3 판 전면 개정에 참고(參考)한 서적들

愛知大學 「中日大辭典 增訂版」大修館書店, 1986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 「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 1996

香坂順一 「現代中國語辭典」光生館, 1982

商務印書館·小學館 「中日辭典」小學館, 1997

「高級漢語詞典」海南出版社, 1996

「中華字海」中華書局·中國友誼出版公司, 1994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新華字典」商務印書館, 1979

「國語日報辭典」國語日報社, 1974

「東方國語辭典 增訂版」東方出版社, 1974

劉正煥·高名凱·麥永乾·史有爲 「漢語外來詞詞典」商務印書館 香港分館, 1985

일 러 두 기

1. 본 사전의 사용법

현대 한어(漢語)의 표준어를 중심으로, 전문어·외래어·학술어·신조어(新造語)·문언어(文言語)·성어(成語)·방언·속담·속어·관용어 등을 총 망라하여 표제자는 간체자(簡體字)·번체자(繁體字)·이체자(異體字)를 포함 총 15,830 여자, 표제어는 약 145,200 어를 수록하였다.

표제자의 발음을 표음 자모(表音字母), 곧 한어 병음 자모(漢語拼音字母)로 알고 있을 경우에는 직접 본문을 알파벳순으로 찾을 수 있다.

표제자의 음을 모를 경우에는 색인(索引)을 이용하여 획수순으로 찾아, 그 글자의 음이나 수록되어 있는 면수(面數)를 알아 낼 수 있다.

각 표제자에는 독음을 달아 한자 자전을 찾는 번거로움을 피했다.

2. 자형(字形)

자형은 1986년 중국 '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가 재공포한《简化字总表》에 근거해 간체자를 기본으로 하고, 번체자와 이체자도 밝혔다.

[보기] 1) 번체자는 간체자 뒤에 ()로 표시하였다.

爱(愛) ài (애)
① ㄱ ...

2) 이체자는 < >로 표시하였다.

杯<盃> bēi (배)
① ㄱ ...

3) 번체자와 이체자를 모두 밝히는 경우
번체자를 앞에 놓고 이체자를 뒤에 놓았다.

檳(檳<枏>) bīn (빈)
→ [檳子]

4) 이체자가 개별적인 뜻에만 적용될 경우에는 이체자의 우측에 해당의 항번호를 붙였다.

抱<菴>③ bào (포)
① ㄱ 안다. ② ㄱ (생각·의견을) 품다. ③ ㄱ (알을) 까다. 부화하다. ④ ...

5) 이체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로 구분하였다.

创<鉋, 鐳> bào (포)
① (~子)...

3. 표제자 배열

(1) 중국식 표음 문자, 곧 한어 병음 자모에 의하여 알파벳순으로 배열하였다.

- (2) 음이 같은 것은 사성(四聲)에 따라, 제 1성(陰平)·제 2성(陽平)·제 3성(上聲)·제 4성(去聲)·경성(輕聲)의 차례로 실었다.
- (3) 동음 동성(同音同聲)인 것은 한자의 획수순, 같은 획수 안에서는 부수순으로 배열, 단 성부(聲部)가 동일한 표제자는 한테 모아 배열하였다.
- (4) 표제자에 번체자(繁體字)·이체자(異體字)가 있을 경우에는 지면을 줄이기 위하여 따로 내세우지 않고, 표제자 다음에 ()에 넣어 번체자를 표시하고, < >는 이체자로 표시하였다.

4. 표제어 배열

동일한 표제자에 속하는 표제어는 제 2음절의 자모·성조·획수순으로, 제 2음절이 동일한 경우는 셋째·넷째 음절의 순으로 유추한다. 단, 경성자는 원래 성조의 바로 다음에 배열하였다.

5. 발음에 대하여

- (1) 발음은 한어 병음 자모(漢語拼音字母)로 표기하였으며, 동시에 1985년 12월, 중국 ‘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가 수정·공포한 《普通话异读词审音表》에 근거하여 수정음을 채택하였다.
- (2) 표제자·표제어의 자음(字音)은 그 글자가 가지는 가장 표준적인 발음을 한어 병음 자모로 표기하고, 사성(四聲)은 성조 부호(聲調符號)로 표시하였다. 단, 경성(輕聲)은 무표시로 하였다.
- (3) 표제자에 두 가지 이상의 음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분리시켜 구분하고, 주석 뒤에 ⇒로 이음을 밝혔다.

[보기] 嗑 ài (애)

〈文〉 ① 咽 인후통(咽喉痛), ② 噎 목이 메다.

= [噎 yē] ⇒ yì

- (4) 표제어의 발음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어·속담·헐후어(歇後語) 따위는 의미에 따라 띄어 썼으며, 성어(成語)는 각 음절마다 띄어 주었다.

[보기] {暗线光谱} ànxiàn guāngpǔ

{碍面子} ài miànzi

{大馒头堵了嘴} dà mántou dǔ le zuǐ 〈諺〉

{猪八戒照镜子} Zhūbājiè zhào jìngzi 〈歇〉

{安居乐业} ān jū lè yè 〈成〉

- (5) 표제어에 두 가지 이상의 음이 있을 경우에는 주석 뒤에 ⇒로 구별하여 나타내었다.

[보기] {数脉} shǔmài 〔漢醫〕 맥을 세다. ⇒ shuòmài

{数脉} shuòmài 〔漢醫〕 삭맥. ⇒ shǔmài

- (6) 표제어 가운데, 이합 동사(離合動詞)는 음절 사이에 丨를 질러 표시하였다. 이 경우에, 다른 쓰임도 있을 때에는 발음을 첨가하

여 구분하였다.

보기 [定局] **㉡** dìngjú (dìngjú) **㉢**

- (7) 격음 부호(隔音符號) : 다음절어(多音節語)의 한어 병음 자모에 의한 발음 표기에서, 혼동될 염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격음(隔音) 부호(')를 썼다.

ㄱ) 이어진 두 개의 모음(母音)이 같은 음절에 속하지 않을 경우

보기 [诱饵] yòu'ěr

ㄴ) 앞의 음절의 끝이 n, ng 일 때, 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

보기 [产额] chǎn'é

- (8) 고유 명사는 첫 자모를 대문자로 쓰고, ()로 표기한다.

보기 [阿曼] Āmàn **㉢** [地] 오만(Oman).

[阿拉] ālā **㉢** [方] 나. 우리. (Ālā) **㉢** [宗] <音> 알라(Allah).

- (9) 일부 표제어의 발음·성조 변화는 변화된 대로 표기하고 밑줄로 표시한다.

보기 [好好儿] hǎohāor

[阿家阿翁] āgū'āwēng

- (10) 같은 표제어라도, 연어(連語)일 경우에는 그 발음을 분서(分書)하고, 일반 어휘와는 구분하였다.

보기 [编队] biān duì ①부대를 편성하다.

②(biānduì) **㉢** 편대.

- (11) 제 3 성의 성조(聲調) 기호에 관하여

ㄱ) 제 3 성이 중복되어 첫째의 제 3 성이 제 2 성으로 변화하는 경우라도, 본디대로 제 3 성으로 표시해 놓았다.

보기 [打水] dǎshuǐ

ㄴ) 제 3 성이 제 1 성·제 2 성·제 4 성·경성(輕聲) 앞에 놓이면 첫째의 제 3 성이 半 3 聲으로 변화하는 경우라도, 본디대로 제 3 성으로 표시해 놓았다.

보기 [老师] lǎoshī

[老娘] lǎoniáng

[老大] lǎodà

[老实] lǎoshí

- (12) '一yī'·'七qī'·'八bā'·'不bù'의 성조(聲調) 기호는 변화하는 대로 표기하지 않고, 원래의 성조대로 표기하였다.

- (13) 儿化音은 앞 음절 운모(韻母)의 변화를 보여 주지 않고 'r'만 표기했다.

보기 [法儿] fǎr

[边儿] biānr

6. 주석(注釋)의 방식

(1) 표제자·표제어가 둘 이상의 현저한 다른 의미를 가질 때 A), B), C) … 등으로 대별하고, 다시 각각 그 어의(語義)를 ①②③ …으로 표시하고, 세분할 경우 ㉠㉡㉢ … ㉠㉡㉢ …으로 나누어 밝혔다.

(2) 표제자에서 뜻이 같으면서 몇 개의 발음이 있을 경우에는 구태여 별개의 항목을 따로 내세울 필요가 없으므로, 그 다른 음만을 첨가하여 보여 주었다.

보기 愴 **chǎng**(tǎng) (창)
→ [愴悅]

(3) 표제자에서 곧바로 [] 안에 2음절의 표제어를 내세운 것은 그 표제자가 주로 그와 같은 복음 단순어를 이루는 데에만 쓰이든가, 혹은 복수 음절이라도 다만 그 말밖에는 쓰이지 않는 경우로서 '→'로 표시하였다.

보기 茺 **chōng** (충)
→ [茺蔚]

(4) 표제자에서, 접미사 '儿'·'子'·'头'를 취하는 것은, 자풀이란에 곧바로 (～儿), (～子), (～儿, ～子), (～子, ～头)처럼 먼저 보인 다음에 주석을 달았다.

보기 案 **àn** (안)
①(～子) …… ②(～子) ……
③(～子) …… ④ ……

(5) 표제어에서, 접미사 '儿'·'子'·'头'를 접사한 것이 다시 파생어를 이룰 때, 접미사를 여전히 보유하는 것은 그대로 파생어를 보였지만, 탈락되는 것 또는 탈락해도 괜찮은 것은 '儿'·'子'·'头'를 생략한 꼴로 보였다.

보기 [打样儿] **dǎyàngr** ㉠ …… ②교정쇄(校正刷)를 내다. ㉡
打样机; 교정쇄 인쇄기.

(6) 표제어에서, '儿'·'子'·'头'를 접미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儿), (～子), (～头)의 꼴로 보였다. 이 경우에, 용례의 파생어가 접미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 처럼 직접 연결시켰다.

보기 [橡子(儿)] **xiàngzǐ(r)** ㉠ 橡(植) ①상수리. 도토리. ㉡～面; 상수리를 가루로 만든 것. ③ …

(7) 대표적 표제어(⇒)의 경우, 해당 표제어의 품사에 중점을 두어 표시했다.

보기 (阿赖) **Ālài** ㉠ <音> ⇒ [阿拉]
(阿拉) **āla** ㉡ <方> 나. 우리. (Āla) ㉢ 《宗》<音> 알라(Allah).
이슬람교의 유일신. = [安拉][阿剌][阿赖] → [真Zhēn主]

(8) 주석은 쉬운 우리말과 한글을 쓰되, 다음 몇 가지 경우에는 중